

수술 급한 광주 맹장염 3세아 ‘병원 찾아 삼만리’

병원 16곳 문의했지만 ‘휴일 의사 없다’·‘만실’ 이유 불가...대전으로 이송 손가락 절단된 30대도 전복으로 원정 수술...광주 의료시스템 점점 시급

맹장염 수술이 필요한 세 살배기 남자아이가 광주에서 수술을 받을 병원을 구하지 못하고 약 200km 떨어진 대전지역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또한 영광지역 사업장에서 작업 중 손가락 일부를 절단당한 30대 남성은 집합 수술 전문 병원과 대학 병원 등 광주 대형 병원 모두가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자 119구급대에 의해 전북으로가 수술을 받았다.

두 사례 모두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광주 대형 병원 등이 “환자를 볼 의사가 없다” “병실이 꽉 찼다”라며 환자를 받지 못하겠다고 밝히면서 생겨난 일로 ‘광주 의료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광주시와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토요일이던 지난 13일 오후 1시께 119 소방상황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세 살배기 아이(A군)가 복통과 고열 증세를 보

인다. 119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였다. 119구급대에 의해 광주시 북구의 한 아동 전문병원으로 이송된 A군은 일명 맹장염이라고 불리는 ‘충수염’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맹장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서둘러 옮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군이 입원한 곳은 광주에서 200km나 떨어진 대전 충남대병원이었다.

대전으로 이송을 결정하기 전 119구급대가 아이를 받을 병원을 수소문했으나 하나같이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소아 외과 수술이 가능한 광주지역 16개 병원에 연락을 취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모두 “아이를 당장 받을 수 없다”는 게 소방당국 설명이었다.

조산대병원은 소아 외과의사 부재로 수술이 어렵다고 밝혔고, 전남대병원은 “수술실이 꽉 찼다”고 소방에 밝혔다. 광주기독병원 등 대형병원 등 나머지 10여개 병원 모두 소아 외과의사가 없거나

병실 포화 등으로 아이를 받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그러던 중 A군 부모가 지인을 통해 “충남대병원에는 의료진과 병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소방당국에 ‘관외 이송’을 요청했다.

소방당국은 종합상황실, 119구급상황실, 출동구급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충남지역으로 관외 이송이 결정됐다. A군은 결국 이날 오후 7시를 넘겨서야 대전 충남대병원에 도착했다. 광주소방 관계자는 “다행히도 A군은 수술을 잘 받고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광주에서 병원을 구하지 못해 전북으로 이송된 사례가 있었다.

영광군 대마면 광통신 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B(37)씨는 이날 오후 4시50분께 오른쪽 4번째 손가락을 2마디 절단당하는 사고를 당했다. B씨가 입원한 곳은 전주지역 병원이었다.

B씨를 응급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는 광주에 있는 집합 전문 병원과 전남대병원, 조산대병원 등 대형 병원 모두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듣고 90km 떨어진 전북 모 병원으로 내달렸다. 당시 전북지역 대형 병원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도

환자를 받을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119에 밝혔다. 집에서 소방 측이 병원 수소문에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B씨는 병원 입원조차 불가능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의료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또는 급성 질환조차 광주 병원에서 대응하지 못하고 ‘관외 이송’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광주시도 잇단 사고 대응 과정에서 광주 의료 시스템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선 의료진 공백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구조”라며 “소아과 의사는 대학병원별로 1~2명씩 밖에 없는데 휴가나 학회 참석으로 부재중이면 환자가 제때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광주지역 한 의사는 “의료 공백을 명확히 드러낸 사례”라며 “점검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시험지 유출 고교생 2명 검찰 송치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를 유출했다 경찰에 붙잡힌 광주 한 사립고등학교 2학년생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12일 ‘교사 노트북 해킹’ 사건을 일으킨 이 학교 학생 A군과 B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받는다.

A·B군은 지난 3~7월 이 학교 중간·기말고사 기간 동안 야간에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심수차례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렸다.

교무실에는 총 13~14차례 침입했으며 10개 과목 15여개 노트북 전체에 접근해 해킹을 시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학교 내 통신망에 침입해 원격 프로그램 ‘페이로드’를 활용해 화면을 캡처한 뒤 외부 통신망으로 유출을 시도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두환 회고록 손배소 항소심 17일 선고

4년 만에 마무리 수순...소송 관계인 정리 안돼 연기 가능성도

전두환씨가 생전 펴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이 약 4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전두환 회고록 관련 항소심 선고 기일을 오는 17일로 예고했다. 원고는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 등 5인으로, 이들은 2017년 4월 회고록 저자 전두환씨와 회고록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씨를 공동 불법행위자로 규정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허위 사실이 담긴 회고록을 퍼내 5·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조비오 신부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에 전씨 부자가 각각 원고들에게 4000만~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허위 표현이 담긴 63개 표현 목록을 삭제하지 않고선 출판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9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씨 부자가 원고 5인 각각에 1000만~1500만원의 위자료 지급할 것을 명했다. 또한 회고록 가운데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부존재’ 등을 직간접적으로 주장한 51개 표현 목록(회고록 제1권 1·2판)을 삭제하지 않고선 회고록 출판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항소심 역시 쟁점은 회고록에서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 등 5·18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왜곡과 관련자 명예훼손이 있었는지다. 특히 손배소송 1심 선고 이후인 2020년 11월 전두환 회고록

관련 형사 재판 1심 선고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헬기사격 등 5·18 관련 역사적 진실에 보다 근접한 판결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형사 재판 1심에서 전씨는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 훼손)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 측이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됐으나 전씨가 2021년 11월 23일 사망, 공소 기각 결정이 나면서 1심은 파기됐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선 전두환 회고록 민사재판 항소심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5월 최종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 의사 합치에 따라 소송 관계인을 정리하기로 했는데, 선고 기일을 앞둔 현재까지 정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두환 사망에 따라 전씨 책임이 부인 이순자씨는 물론 전두환 손자녀에게까지 승계될 형편에 놓인 것을 두고, 원고 측은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라며 손자녀에 대한 손배 청구는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4일 현재 법원 시스템상 피고 명단에 전재국, 이순자씨뿐 아니라 손자녀 3명의 이름이 올라있다.

이와 관련 원고 측 대리인은 “전두환 손자녀에 대한 소 취하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고 측이 기한 내 동의할 경우 선고 일정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막바지 물놀이 즐겨요”

피서객들이 15일 함평 엑스포공원 물놀이장에서 물세례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함평 물놀이장은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을 끝으로 올해 운영을 마감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완도서 벌초하던 50대 벌에 쏘여 사망

추석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벌초에 나섰던 50대 남성이 벌쏘임 사고로 숨졌다.

지난 13일 오전 9시 10분께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의 한 야산에서 A(50)씨가 벌에 쏘였다는 신고가 119 전남상황실에 접수됐다. 당시 A씨는 추석(9월 10일)을 앞두고 예초기를 사용해 벌초하던 중이었고, 벌 쏘임 사고를 목격한 A씨의 동생이 신고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벌에 쏘인 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고, 결국 신고 접수 2시간여 만에 숨졌다”고 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신안 해수욕장에 카약 타러 간 50대 실종

카약을 타고 오겠다며 가족에게 알리고 신안의 한 해수욕장으로 향했던 50대 남성의 행적이 끊겨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15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2일 밤 신안군 임자면 대광해수욕장에 도착했다. 가족들 예전 카약을 타기 위해 신안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사흘이 지난 이날 오전 A씨의 가족으로부터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12일 밤 신안 대광해수욕장에 도착했다는 전화 이후 소식이 끊겼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수색에 나선 해경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해수욕장 인근에서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과 카약을 찾았으나 A씨는 발견되지 않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h2>상무지구(상가매매)</h2>	<h2>당진(신축)원룸매매</h2>	<h2>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h2>																										
<p>1) 감정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용 4억가)</p> <p>2) 월수익 350만 (보 4천)</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시비없음,시설완비)</p>	<p>월수익 750만 연수익 9천만 매매 14억5천(용7억)</p> <p>▶ 임대관리 직접해드릴 10년간 임대걱정 없음.</p> <p>대산향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엘지정유,입주및공사시작</p> <p>엘리베이터있음, 주인세대있음.</p>	<p>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p> <p>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p> <p>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p> <table border="1"> <tr> <td>광주</td> <td>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td> </tr> <tr> <td></td> <td>광주 광산구(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td> </tr> <tr> <td></td> <td>광산구 장덕동(아파트)▶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td> </tr> <tr> <td></td> <td>서구 매월동(임야)▶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td> </tr> <tr> <td></td> <td>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td> </tr> <tr> <td></td> <td>서구 치평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td> </tr> <tr> <td></td> <td>동구 운림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td> </tr> <tr> <td>전남</td> <td>장성군 서삼면(농지)▶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td> </tr> <tr> <td></td> <td>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td> </tr> <tr> <td></td> <td>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td> </tr> <tr> <td></td> <td>다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td> </tr> <tr> <td>시외</td> <td>경남 김해시(숙박시설)▶ 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td> </tr> <tr> <td></td> <td>전남 영암군(근린시설)▶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td> </tr> </table>	광주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주 광산구(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운림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다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광주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주 광산구(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운림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다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p align="center">010-6670-9800 (062-382-5500)</p>																												